

홍성군, 스마트 수출단지 선정... 신제품 딸기 수출 본격화

비관세장벽 대응 생산기반 확충
총사업비 9억7500만원 투입
전용 육묘시설·재배온실 신설
ICT 융복합 설비 7종 도입
동남아 안정화·중동 판로 확대



홍성군 프리미엄 딸기 아리향.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신제품 딸기의 안정적인 수출 생산 기반 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수입국의 검역 및 안전성 기준 강화 등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스마트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홍성군은 전국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출 조직의 전문성과 품목 차별화 전략을 인정받아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충남도 내 선정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사업비 9억 7500만 원(국비 3억 9000만 원, 지방비 3억 9000만 원, 자부담 1억 9500만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 대상자인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홍성군 첫 딸기 수출 이후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스마트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 전용 육묘장 2동 및 재배 온실 12동 신축 ▲ICT

융복합 설비 등 스마트팜 핵심 기자재 7종 도입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은 생산부터 저온 유통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화해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품질 규격 생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홍성군과 충남도의 다각적인 수출 정책 지원을 통해 홍성군 딸기 수출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만 5000달러(1.8톤)에 불과하

던 수출액은 2025년 62만 1000달러(34톤)로 약 25배 증가했으며, 2026년 3월 기준 이미 85만 5000달러(45톤)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기존 시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등 신규 유망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다변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비 확보에 맞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 확충과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란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홍성 신제품 딸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4개 과기원 도시 창업도시 선정

울산시는 정부가 울산을 비롯해 4대 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과 대구, 광주를 창업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은 기존 제조 산업 기반 위에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먼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창업원 신설,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투자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투자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김해시

'러브챌린지' 참가자 모집

김해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기 나는 김해술로 - 러브챌린지' 참가자 24명을 모집한다. '나는 김해술로'는 결혼·출산 이전에 '만남'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된 사회 변화에 대응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이다. 이번 7기 행사는 관내 펜션과 김해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진행되며 커플 피구·수영장 게임·몸으로 말해요·볼링장 데이트 등 교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주마 복지 '마필코노미' 출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경주마의 진료·재활과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자발적 복지 기금 프로젝트 '마필코노미(馬-Feelconomy)'를 본격 시작했다. 마필코노미는 희망 마주가 1회 50만원을 기부하면 이 기금이 경주마 진료·재활과 은퇴 후 복지 체계 구축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경주마를 단순한 객체가 아닌 기금 조성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경마 현장에 성숙한 말 복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 기부자는 신우철 부산경남마주협회장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샷' 발사·공동운영 협력 공식화

부산시-천문원 역할 분담 구체화
한미 협력 토대 운영체계 정비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이 초소형 해양관측위성 '부산샷' 발사와 공동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부산시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부산샷 발사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관련 준비를 본격화한다.

협약배경에는 올 3월 한미 우주협력 협정에 따라 국내 이행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맺은 부산샷 관련 업무 협력 협약이 있다. 이번 협약은 그 위에서 발사와 운영 단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규정할 후속 조치다.

부산샷은 해양 미세 먼지 등 대기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된 초소형 위성이다. 2022년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천문연구원,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기술 협력으로 제작됐

며 지자체가 직접 위성 제작에 나선 첫 사례다. 관광 카메라는 한국천문연구원, 위성 본체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각각 개발했다.

탑재된 관광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보다 정밀도가 높아 해양과 대기 중 미세 먼지의 크기·성분 분석에 적합하다. 두 기관은 그간 해당 카메라의 성능 검증과 보정 작업을 지속해 관측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공룡대축제 안전 준비 총력

해남군, 내달 2~5일 박물관 일원 개최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해남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룡이 살아있다! 해남공룡대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공룡대축제는 국내최대 규모 공룡전문박물관인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신나는 시간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축제기간 3일동안 1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던 만큼 이번에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시설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축제 관람객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총 2,31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황산면 소재지와 박물관 사이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람객들을 축제장 이동을 원활히 할 예정이다. 황산면 소재지 공룡박물관 진입로는 일방통행으로 운행되며, 셔틀버스만 양방향 운행이 가능하게 운영을 통제한다. 셔틀버스의 운영은 5월 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5일에는 오후 6시까지이다. 셔틀버스는 해남읍 서림공원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코스와 황산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코스가 각각 운행한다. 기존 축제장 전체를 순회하던 공룡 열차의 운행 구간을 조정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관람객들이 붐비는 주요 버스 인근은 차없는 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주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1단계 개방

총 130억 투입 단계별 추진

경주시가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1단계 조성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시는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의 하나로 해당 구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부터 시민 이용을 시작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공원의 본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도심 내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뉘어 총 130억 원을 투입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황성공원 북측 계림중학교 맞은편에서 경주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 교목과 남천, 산철쭉, 회양목 등 관목이 식재됐다.

또 3.6km 길이의 산책로와 9000㎡ 규모 잔디광장, 470m 길이 개천이 조성됐으며, 파고라와 벤치,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됐다.

2단계 사업은 황성공원 남측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현재 시설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1단계 조성 완료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북도, 통합돌봄·노동통합 최우수

사회연대경제 중심 지역 모델 구축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통합돌봄과 노동통합 2개 분야가 전국 최우수 모델로 선정되며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중심으로 돌봄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지역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돌봄 서비스와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북형 지역 생태계' 조성이 핵심이다.

통합돌봄 분야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군·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돌봄 앵커 조직으로 육성해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 방문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돌봄코디네이터 양성·운영,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의료, 주거, 안전, 이동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n9@